

석사학위논문

귀농·귀촌 컨설팅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권도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현우

귀농·귀촌 컨설팅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Consulting
on the Rural Migration Intention for Urban workers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권도원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현우

귀농·귀촌 컨설팅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Consulting
on the Rural Migration Intention for Urban workers

위 논문을 컨설팅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지식서비스&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컨설팅전공

권도원

권도원의 컨설팅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귀농·귀촌 컨설팅이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 컨설팅 대학원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매니지먼트 컨설팅전공

권 도 원

귀농·귀촌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이 대부분 아직 귀농을 하지 않은 도시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연구가 귀농·귀촌을 구분하지 않고 귀촌을 귀농의 범위로 간주하여 주로 귀농인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귀농인과 귀촌인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농촌이주 의사결정요인도 분명히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시민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귀농·귀촌컨설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 의사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 및 귀농·귀촌 컨설팅의 영향 등을 제시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귀농인이 농촌으로 귀농을 결심했을 때 귀촌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영농여건($F=12.190$, $p<0.01$), 문화적여건($F=4.860$, $p<0.05$)이었고, 둘째, 귀농·귀촌 의향자와 귀농·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은 결정요인 및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 모두 귀농·귀촌을 결심했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중요도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

다.

셋째,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확인을 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의사 결정요인은 컨설팅 유무, 농업소득, 외부주거환경이며, 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농업소득이 없거나 30%이하인 경우 귀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주거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귀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귀농·귀촌, 귀농컨설팅, 귀촌컨설팅, 농촌이주의사, 농촌이주의향, 농촌이주동기, 농촌이주결정요인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제 3 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제 1 절 귀농·귀촌 개념	3
제 2 절 귀농·귀촌 현황	4
제 3 절 귀농·귀촌 유형	9
제 4 절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	12
제 3 장 연구 설계	14
제 1 절 연구모형	14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15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5
1. 조사 방법 및 대상	15
2. 조사 도구	15
3. 분석 방법	16
제 4 장 연구 결과	16
제 1 절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16
제 2 절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19
제 3 절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 이주의사의 차이	20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	20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의 차이	21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의 차이	23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경험의 차이	24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영향의 차이	25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이유의 차이	26
제 4 절 컨설팅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이주 이사의 차이	28
1. 컨설팅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28
2. 컨설팅 여부에 따른 이주의사 결정의 차이	29
제 5 절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 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	30
1.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의 차이	30
2.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	31
제 6 절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	33
1.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33
2.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이주 의사결정요인의 차이	34
3.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36
4.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귀촌의사결정의 차이	37
제 7 절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 이주 의사결정과의 관계	38
제 8 절 농촌 이주요인이 귀농·귀촌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39
 제 5 장 결 론	 42
 참고문헌	 44
부 록	45
 ABSTRACT	 51

표 목 차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요약	2
[표 2-1]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	5
[표 2-2] 가구주 성별·연령별 귀농가구	6
[표 2-3] 귀농 전 거주지 역별 귀농가구	6
[표 2-4] 시도별 귀촌가구 현황	7
[표 2-5] 귀촌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현황	8
[표 4-1] 농촌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17
[표 4-2] 농촌 이주 결정 요인 분석 결과	18
[표 4-3] 설문지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결과	18
[표 4-4] 인구사회학적 특성	19
[표 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	21
[표 4-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의 차이	22
[표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의 차이	23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경험의 차이	24
[표 4-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영향의 차이	25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이유의 차이	27
[표 4-11] 컨설팅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28
[표 4-12] 컨설팅여부에 따른 이주의사의 차이	29
[표 4-13]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의 차이	31
[표 4-14]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	32
[표 4-15]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33
[표 4-16]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귀농의사결정요인의 차이	34
[표 4-17]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36
[표 4-18]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귀촌의사결정요인의 차이	37
[표 4-19]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이주의사결정과의 관계	38
[표 4-20] 농촌 이주요인이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9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 모형	14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6년~2010년 동안 이루어진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가 주로 도시민의 농촌지향 동기와 생활 만족도, 도시민의 농촌 지향효과, 농촌생활 정착과정, 지원방안 및 은퇴자의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오수호, 2011), 2011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 귀농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대상이 대부분 아직 귀농을 하지 않은 도시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연구가 귀농·귀촌을 구분하지 않고 귀촌을 귀농의 범위로 간주하여 주로 귀농인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귀농인과 귀촌인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농촌이주결정요인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이주결정 요인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시민의 농촌이주 의사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귀농·귀촌컨설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귀농·귀촌컨설팅이 농촌이주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을 제시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귀농·귀촌인 통계보고에서도 2012년까지는 귀농·귀촌을 구분하지 않고 귀농·귀촌인 통계보고를 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2년 기준)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통계가 처음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봐도 이제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여 농촌이주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11년부터 2013년 기간에 귀농·귀촌한 귀농·귀촌인 및 향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을 조사 대상으로 농촌이주결정 요인과 귀농 교육 및 귀농 컨설팅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설문 실시하여 실제로 귀농·귀촌한 사람과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사람 간의 차이 및 귀농·귀촌 컨설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 3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귀농인(귀촌 포함) 또는 도시민으로 각각 별도로 선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귀촌인 및 도시민을 동시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포함) 또는 귀촌(귀농 포함)으로 단순화하여 귀농·귀촌 구분 없이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을 구분하여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셋째, 귀농·귀촌 컨설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표 1-1] 선행 연구와의 차별점 요약

		이시자 (2010)	남인현 (2011)	김정섭/ 임지은 (2012)	최준호 (2013)	오수호 (2013)	본 연구
조사대상	도시민	문헌조사	●	●	●	X	●
	귀농·귀촌인		X	X	X	●	●
귀농·귀촌 정의(연구)	귀농(귀촌포함)	●	●	●	●	●	
	귀농·귀촌 구분						●
통계보고 (통계청)	귀농(귀촌포함)	~2011년 귀농인 통계 (2012.12)					
	귀농·귀촌 구분	2012년 귀농인, 귀촌인 통계 (2013.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귀농·귀촌 개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귀농은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감'을 뜻하며, 귀촌은 '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으로 되어 있고, 박은경(2008)은 도시 은퇴자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살기위하여 삶의 장소를 농촌으로 옮겨 규모에 관계없이 원예활동을 영위하는 범위까지를 귀농인으로 보았다. 김정섭(2009)은 '귀농'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려는 목적으로 외부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귀촌'은 귀농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인구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였으며, 김정섭과 임지은(2012)은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잠정적으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것을 귀촌이라고 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후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귀농이라고 정의하며 귀농을 귀촌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윤석환(2010)은 귀농인의 범위는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농촌은 농업이 주 소득원이 아닌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에서 은퇴한 사람들까지 귀농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촌출신 및 과거 영농종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을 귀농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남인현(2011)은 귀농을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해 이를 경영해나가는 창업의 한 형태로 보고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귀촌을 귀농에 포함시켜 정의하였다. 2012년에 KB경제연구소는 귀농은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전업 혹은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고, 귀촌은 지역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농업 이외 직종에 종사하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3년에 유학열은 도시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되,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는 경우를 귀농이라 정의하고, 도시민이 영농 목적이 아닌 노후 휴양, 전원생활 등을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계소득의 대부분이 농업 외 소득일 경우를 귀촌이라 정의하였

으며, 2013년에 최준호는 귀촌을 귀농의 한 형태로 보고 귀농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하며, 현 사회의 특성상 귀농에 대해 다방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거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한 과거에 농촌에 살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에서 농사 이외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귀농으로 보았다. 2013년부터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분하여 통계보고를 시작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귀농인이란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매년 11월 1일) 1년 전 주소가 동(洞)지역이고 현주소가 읍·면(邑·面)지역인 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축산업등록명부,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신규등록한 자'이고, 귀촌인이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단, 회사원,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는 경우 제외'라고 정의되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자들의 귀농과 귀촌의 정의를 보면 김정섭과 임지은은 귀농을 귀촌의 일부로 봤고, 남인현과 최준호는 귀촌을 귀농의 일부로 보는 등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귀농·귀촌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었고, 실제 연구도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정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촌관련 소득이 30%이상이 되면 귀농, 30% 미만이면 귀촌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제 2 절 귀농·귀촌 현황

귀농·귀촌의 시대적 추이를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철학적 이념에 의한 의도적 귀농이 주를 이루었고, 1998년 외환위기 이후는 생계형 귀농이 급증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전업형 귀농, 생태 지향형 귀농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은퇴이후 장노년층의 귀촌이 두드러지고 있고, 향후에는 직업이나 나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생계 수단과 주거 공간을 농촌으로 옮기는 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 공동화 공간을 탈피하려는 각 지자체의 현실과 맞물려 이러한 현상은 한층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업연구원, 2008, 『지역과 농업』, 3호, 83-98).

김윤성(2012)은 NHERI 리포트 177호에서 90년대 후반의 귀농이 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실직 후 귀농과 같은 부정적 이유가 배경이었다면 최근의 귀농·귀촌은 도시생활의 대안으로 농업·농촌과 생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선호가 이유가 되고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 출생 세대)의 은퇴가 2010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도향촌(移都鄉村) 흐름은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하는 등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 중 상당수가 희망하고 있어 향후 귀농·귀촌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귀농·귀촌인 가구는 11,220가구(19,657명)로 전년의 10,075가구(17,464명)보다 11.4% 증가하였고, 시도별로는 경북이 2,080가구(18.5%)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경남, 전북, 충남, 경기도가 1,000가구를 넘었다.

[표 2-1] 시도별 귀농·귀촌인 현황

연도	전국	읍부	면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년	10,075	2,218	7,857	33	60	79	74	-	1,105	807	745	1,110	1,078	1,600	1,840	1,291	253
(비율)	100.0	22.0	78.0	0.3	0.6	0.8	0.7	-	11.0	8.0	7.4	11.0	10.7	15.9	18.3	12.8	2.5
(가구원)	17,464	3,991	13,473	72	109	128	131	-	1,877	1,337	1,220	1,889	1,944	2,710	3,212	2,388	447
2012년	11,220	2,302	8,918	29	80	89	55	93	1,027	972	918	1,214	1,238	1,733	2,080	1,434	258
(비율)	100.0	20.5	79.5	0.3	0.7	0.8	0.5	0.8	9.2	8.7	8.2	10.8	11.0	15.4	18.5	12.8	2.3
(가구원)	19,657	4,261	15,396	63	158	124	103	125	1,819	1,601	1,598	2,112	2,257	3,008	3,596	2,602	491

*자료: 보도자료,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3. 3. 28)

가구주의 성별은 남자가 7,775명으로 69.3%, 여자는 3,445명으로 30.7%이고,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2.8세로 전년의 52.4세에 비하여 0.4세 높아졌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298명으로 38.3%, 40대가 24.7%로 40~50대가 63.0%를 차지하였으며, 전년에 비하여 30대 이하와 40대, 60대는 줄어들고 50대, 70대 이상은 증가하여 50대 이상의 비율도 63.9%로 전년의 62.7%보다 1.2%p 높아졌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과 과거 농업경력자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표 2-2] 가구주 성별·연령별 귀농가구

(단위 : 가구, %, 세)

연도	합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1	10,075	7,063	3,012	1,202	916	286	2,555	1,824	731	3,764	2,486	1,278	2,007	1,493	514	547	344	203
(비율)	100.0	70.1	29.9	11.9	9.1	2.8	25.4	18.1	7.3	37.4	24.7	12.7	19.9	14.8	5.1	5.4	3.4	2.0
(평균 연령)	52.4	52.2	53.0	-	-	-	-	-	-	-	-	-	-	-	-	-	-	-
2012	11,220	7,775	3,445	1,292	980	312	2,766	1,891	875	4,298	2,837	1,461	2,195	1,641	554	669	426	243
(비율)	100.0	69.3	30.7	11.5	8.7	2.8	24.7	16.9	7.8	38.3	25.3	13.0	19.6	14.6	4.9	6.0	3.8	2.2
(평균 연령)	52.8	52.6	53.3	-	-	-	-	-	-	-	-	-	-	-	-	-	-	-

*자료: 보도자료,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3. 3. 28)

귀농 전 거주 지역은 경기, 서울, 부산, 대구, 경남순서로 많았고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4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3] 귀농 전 거주지 역별 귀농가구

(단위 : 가구)

귀농 전 전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1년	10,075	2,014	727	712	552	554	416	190	2,190	231	192	215	534	363	440	608	137
2012년	11,220	2,316	827	783	618	642	511	213	2,445	265	232	213	531	332	507	655	130
읍부	2,302	478	144	127	109	104	74	54	538	57	53	46	82	95	129	121	91
면부	8,918	1,838	683	656	509	538	437	159	1,907	208	179	167	449	237	378	534	39
부산	29	1	22					1		1					1	3	
대구	80	2		66			1	3	1	1				1	4	1	

세종	93	29	1	1	4		29		18		3	6	1		1		
경기	1,027	416	5	3	51	2	3	2	508	10	9	2	2	4	5	4	1
강원	972	320	7	6	72	1	14	2	314	203	18	6			5	4	
충북	918	236	10	8	69	2	121	9	263	11	160	16	2	1	5	5	
충남	1,214	302	8	7	139	1	219	6	346	5	9	144	15	3	6	1	3
전북	1,238	261	25	10	55	54	60	9	234	4	8	14	476	12	2	12	2
전남	1,733	294	66	5	81	576	24	6	300	7	6	7	22	304	6	24	5
경북	2,080	271	178	581	84		22	110	284	20	13	10	7	2	440	57	1
경남	1,434	108	471	93	24	3	14	33	102	3	3	6	4	3	28	537	2
제주	258	42	20	2	6	2	4		51		2	1	2	2	4	5	115

*자료: 보도자료,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3. 3. 28)

2012년 귀촌가구는 15,788가구(27,665명)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44가구(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충북, 강원, 경북이 1,000가구를 넘었으며, 이는 수도권 인접 등 전원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귀촌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 시도별 귀촌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명)

연도	전국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2년	15,788	-	2	13	9	33	5	6,644	2,786	2,897	319	990	313	1,015	687	75
(비율)	100.0		0.0	0.1	0.1	0.2	0.0	42.1	17.6	18.3	2.0	6.3	2.0	6.4	4.4	0.5
(가구원)	27,665	-	5	41	31	95	10	11,372	4,703	4,781	672	1,889	568	1,934	1,398	166

*자료: 보도자료,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3. 3. 28)

귀촌가구주의 연령대는 50대가 4,001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369명(21.3%), 40대 3,302명(20.9%), 60대 3,007명(19.0%), 70대 이상 2,109명(13.4%)이고, 귀촌가구주의 성별 비율은 남자 70.9%(11,192명), 여자 29.1%(4,596명)이다.

[표 2-5] 귀촌가구의 성별 연령별 현황

연도	총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2년	15,788	11,192	4,596	3,369	2,313	1,056	3,302	2,330	972	4,001	2,815	1,186	3,007	2,259	748	2,109	1,475	634
(비율)	100.0	70.9	29.1	21.3	14.7	6.7	20.9	14.8	6.2	25.3	17.8	7.5	19.0	14.3	4.7	13.4	9.3	4.0

*자료: 보도자료,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2013. 3. 28)

정부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영농정착자금과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88개 곳이 조례를 마련하고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은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의 특징을 보면, 농지가격이 저렴하고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있는 곳이 정착 지역으로 선호되며, 영농규모는 0.1~1ha가 가장 많아 영세소농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귀농·귀촌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영농비 부족과 소득원 마련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이며, 또한 제도 상 미비로 주요한 소득안정책인 쌀 직불금 수령 등에서 배제되는 점도 소득원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촌의 불편한 생활여건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문제 등도 귀농·귀촌 과정의 주요한 어려운 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해외 귀농·귀촌 지원정책 사례를 보면 2000~2020년 농가인구의 4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농업·농촌 해체위기가 심각한 일본은 도시민의 농업부문 유입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특히 2012년부터 청년 취농자를 위한 급여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35세 이하 농가 경영주가 빠르게 줄어드는 등 농촌 고령화와 농업노동 세대교체 문제가 심각한 EU는 차기(2014~2020) 공동 농업정책에 40세 이하로 새로 농업에 진입하는 젊은 농업인을 위한 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영국은 도시에서 농업·농촌으로 새로 진입하는 젊은이를 위한 교육과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Fresh Start」를 운영하고 있다.(김운성, 2012)

최근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는 귀농·귀촌에 대한 이미지 변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개시 등으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닌 지속적 현상으로 정착되고 있고, 도시민의 농촌 거

주 의향 50% 상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도시지역의 일자리 제약 탈피 욕구 등이 귀농·귀촌 증가세를 견인 2010년 이후 695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귀농·귀촌가구의 양적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KB경제연구소, 2012, KB daily 지식 비타민, 81호).

2010년부터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비수도권 및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분산이 나타나고 농촌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2005~2010년 사이에 전체 베이비붐 세대 인구 중 수도권과 도시(洞)지역의 인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농촌(畝·面)지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약 2만 3천 명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전이되기 시작하는 202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의 본격적인 감소와 고령인구 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은퇴 후에는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으며, 13.9%는 이미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85.8%가 향후 10년 이내에 농촌이주를 희망하여 향후 10년 동안 농촌으로의 이주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촌이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목적 중 “본인 및 배우자의 노후 전원·휴양·여가 활동 영위를 위해서”가 6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에 이어 “농어촌 공동체 사업조직에의 참여를 통한 일자리 구득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가 15.6%를 차지 농촌이주 계획을 가진 경우, 농림수산물 생산·가공·판매(11.2%), 음식점·숙박업·펜션·체험농원 경영(8.2%)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김창현, 변필성, 2011)

제 3 절 귀농·귀촌 유형

귀농·귀촌 유형에 대해 박공주(2006)는 전통적 인구이동 유형을 응용하여 U-Turn형, J-Turn형, I-Turn형으로 구분하였다 U-Turn형은 고향인 농촌에서 거주하다가 학업, 취직 등을 위하여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동을 뜻하고, J-Turn형은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전할 경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 지역의 농촌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뜻하며, I-Turn 형은 농촌출신이 아닌 도시 주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경우를 뜻한다.

유학열(2011)은 귀농·귀촌 가구의 정착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한 분석항목으로 귀농·귀촌 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기본생활권을 설정하고, 귀농·귀촌 유형화를 위한 구분 기준은 이주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등을 기초로 하여 설정하였다. 귀농·귀촌 유형을 전업 귀농형, 은퇴 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 휴양형, 도시 출퇴근형으로 구분하여 충남의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김철규(2011)는 농림수산물식품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귀농·귀촌 동기와 행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의 유형을 경제 생계형, 대안가치 추구형, 개인생활 효용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경제 생계형’은 일차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귀농·귀촌한 집단으로 가업을 이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관련 사업 및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둘째, ‘대안가치 추구형’은 경제적 목적과 개인적인 효용을 넘어서 농촌사회의 공익적 기능과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한 사람들로 ‘개인생활 효용형’은 귀농·귀촌의 동기와 귀농·귀촌한 이후의 삶의 목적이 주로 자신과 가족 개인의 생활상의 편의나 효용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동기유형을 이주 패턴별 유형(U턴, J턴, I턴형)과 교차 비교한 결과, 대안가치추구형은 I턴형이 가장 많았으며(57.5%), 경제 생계형(63.4%)과 개인생활 효용형(51.4%)은 U턴형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수행(2012)은 귀농·귀촌 유형을 스마트형, 전원생활형, 노후 생활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스마트형은 자본과 모바일·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융·복합 농산업을 발전시켜 역대 부농을 확대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고, 전원생활형은 은퇴 이전에 이직하여 소규모 영농과 유통, 관광, 창작활동 등에 종사하며 전원적 생활을 중시하고, 노후생활형은 은퇴자가 농촌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규모의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자족적 노후생활을 영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B경제연구소(2012)는 귀농·귀촌 유형 분류를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생태적 삶을 통해 정신적 풍요를 얻으려는 자아 실현형,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농업, 농촌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영농목적형, 농촌에 살면서 도시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농촌 체류형, 복잡한 도시보다 농촌에서 여가와 노후를 보내려는 전원 생활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특성을 구분하여 집단별로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 평가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들이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

역사회와 마을주민과의 친밀도, 결속도, 고립도에 따라 성공도 인식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귀농·귀촌 이후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주민, 지도자, 공무원, 귀농인)과의 친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마을과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융화도가 높을수록, 고립도가 낮을수록 귀농·귀촌에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친밀도와, 지역사회 공동체로의 결속도와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이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가족관계 요인 중에서는 특히 배우자가 귀농·귀촌 생활을 지지할수록 귀농·귀촌의 성공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연령, 학력, 소득)과 귀농·귀촌 행태 요인들(귀농기간, 귀농 유형, 직업, 경작규모)은 귀농·귀촌의 성공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귀농·귀촌 후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성공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다. 통계적 유의도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도 성공적 정착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대안가치 추구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을 성공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귀농·귀촌 동기를 크게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으로 구분했을 때,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성공도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대안가치추구형 귀농·귀촌인 집단이 경제생계형과 개인효용형 귀농·귀촌인 들보다 자신들의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성공도 평가가 달라졌다. 귀농·귀촌 준비기간이 길수록 상대적으로 귀농·귀촌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이유로 사전준비 부족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던 점과 관련시켜 볼 때, 귀농·귀촌의 성공적 정착에 귀농·귀촌 이전에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귀농·귀촌 성공도를 종속변인으로 삼아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추출한 결과,지역사회,가족관계,귀농동기,귀농준비 변수들이 귀농·귀촌 성공도 인식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들임이 밝혀졌다.

종합하면, 충분한 귀농준비 기간을 갖고, 지역사회에 융화되려고 노력하면서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배우자의 지지를 얻고, 농촌사회가 갖는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귀

농·귀촌인일수록 자신들의 귀농·귀촌 생활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가족관계, 귀농·귀촌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 귀농·귀촌 생활의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철규외 2011)

제 4 절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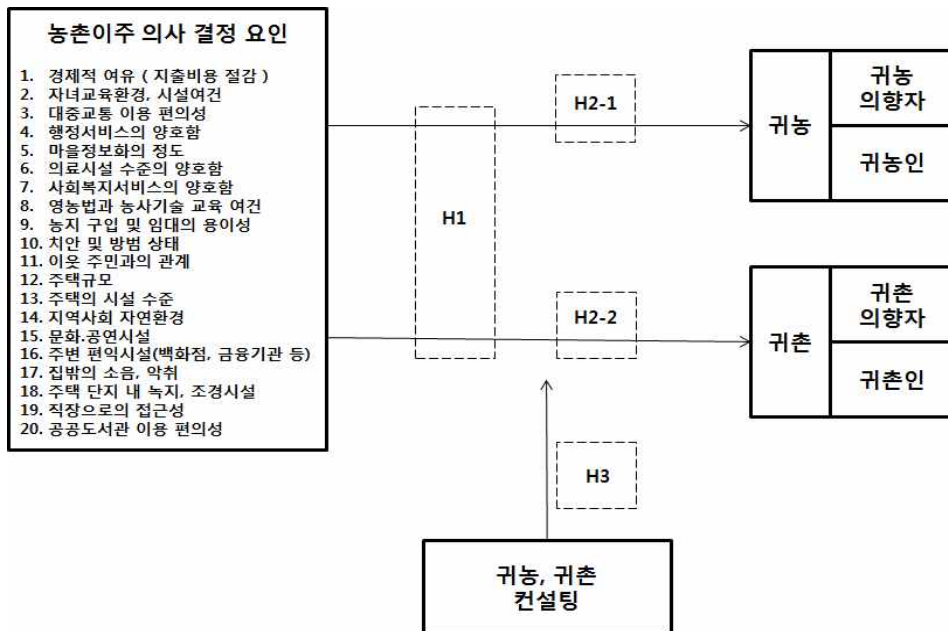
귀향 농가의 발생 원인이 시기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는 영농목적에서 발생된 귀향 농가라기보다는 도시적응 실패에서 비롯된 단순한 귀향의 성격인 배출요인(PUSH)과 가족부양 등의 사회적 이슈가 강하게 작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는 농업 소득을 위한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고려한 농촌의 흡입요인(PULL)과 경제적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였고 (우종현, 1997) 신운철 등(1998)은 앞으로 농촌 전망이 밝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가 30.2%로 가장 높았고, 영농을 승계할 목적으로 귀농한 경우가 15.8%, 도시소득 미흡 또는 도시 생활의 싫증(22.3%), 사업실패 16.8%, 노후 대비 및 전원생활이 각각 5%, 건강관리 2.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농의 이유가 부정적 원인(39.1%)보다 긍정적인 원인(53.0%)이 높게 나타나 도시 생활에 정착하지 못한 도피성 귀향이 아닌 확고한 영농의욕을 갖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어 농업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고 했다. 김성수 등(2004)은 귀농동기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19.1%)’, ‘사업에 실패해서(17.5%)’,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15.9%)’, ‘농업에 대한 전망이 밝아서(10.8%)’, ‘노후 대비로(10.4%)’, ‘전원생활 및 건강을 위하여(9.8%)’, ‘영농승계를 위하여(9.4%)’, ‘기타(7.1%)’의 순으로 보았으며,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인간다운 삶’이 중요한 귀농동기임을 밝혔다. 유학열 (2013)은 충남지역으로 귀농·귀촌한 목적은 농촌 (전원)생활을 하기 위함 (30.5%) ,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20.2%), 직장 은퇴 후 노후휴양을 위해 (11.9%), 인간다운 삶을 위해(10.8%), 농업 외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10.8%)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6.9%), 본인 또는 가족의 취미생활을 위해(1.4%)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수호(2013)의 연구에서는 귀촌

동기 1순위는 이상적인 삶(17.4%), 도시생활염증(14.4%), 사업실패 및 실직(12.0%)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쾌적한 환경(22.9%), 도시생활에 대한 염증(18.5%), 건강관리목적(18.0%)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2순위와 같이 쾌적한 환경(19.6%), 노후대비(15.3%), 건강관리목적(13.4%)순으로 나타났다. 윤순덕 외,(2005)는 장년층 도시민이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사에는 ‘도시소득 미흡, 직장상의 이유’라는 도시의 배출요인보다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남은 인생을 농촌에서 텃밭 등을 가꾸며 살기 위해’라는 농촌의 환경적 흡인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남성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농촌거주경험이 있고 농업·농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할 의사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준호(2013)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고 농촌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며, 집밖의 소음 및 악취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지역사회 환경의 자연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귀농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변편익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성장지역이 대도시인 사람,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직, 전문/자유직의 직업을 가진 도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귀농의사가 더 낮게 나타났다. 도시민들의 귀농을 농사지으러 농촌으로 내려가는 거주지의 이동 현상이 아니라 농업부문에서의 창업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한 남인현(2011)의 한계는 도시 근로자들의 귀농의지가 실제로 행동으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보면 점점 도시의 배출요인보다 농촌의 흡인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연구가 귀농인과 귀촌인을 동일하게 보고 연구를 한 것이라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대해 각각 알아보기로 하였다.

제 3 장 연 구 설 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실제 귀농·귀촌한 사람들과 의향만 있는 사람들 간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 의사 결정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가설 1 :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귀농·귀촌 의향자와 귀농·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 귀농 의향이 있는 자와 귀농인의 귀농의사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 귀촌 의향이 있는 자와 귀촌인의 귀촌의사 결정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방법 및 대상

이 연구는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의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충남 서천지역 귀농인 협의회원 및 서울에 거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 방법은 귀농·귀촌인 대상은 연구자가 직접 충남 서천 귀농인 협의회 및 서천지역 전원 마을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으며, 도시민 대상으로는 구글독스 및 이메일로 발송 및 회신을 받아 취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3년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최준호(2013)의 ‘도시민의 귀농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설문지를 참고하여 농촌생활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에 관련 문항을 추출하였고, 예비 조사 후 필요 없는 문항 삭제 및 추가 등 최종 수정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3. 분석 방법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spss19.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및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설문지의 신뢰도를 위한 신뢰도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이주요인의 차이와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이주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농촌이주 요인이 귀농·귀촌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설문지의 타당성 및 신뢰성은 다음과 같다.

농촌생활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는 5점 리커드 척도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결과 6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농촌인식에 대한 하위요인을 삶의 여유, 경제적 안정, 자연환경, 주거환경, 자존감, 경제적 지원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8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생활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는 의미이다.

농촌이주 의사결정은 5점 리커드척도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분석결과 6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은 행정 및 의료서비스, 외부 주거환경, 영농여건, 문화적여건, 내부주거환경, 경제적 여건으로 명명하였다. 신뢰도는 .868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표 4-1] 농촌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성분					
	1	2	3	4	5	6
14.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731	-.098	.078	-.170	-.054	-.049
15.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	.646	-.145	.066	-.203	.158	-.026
10. 일을 통해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	.552	.262	.044	-.111	.207	.070
9. 일을 통해 은퇴 후의 허탈감을 줄일 수 있다	.536	.283	-.044	-.135	.260	.018
16. 유기 농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529	.161	.154	.166	.053	-.221
13.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	.521	-.021	.436	-.024	.093	.112
7. 재산이 급격하게 손실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064	.866	.031	-.034	-.090	-.016
8.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하게 될 수 있다	.116	.699	-.150	.057	.169	-.231
3. 농촌에서의 삶은 이웃들 간의 공공체적 유대가 크다	-.114	.465	.431	-.207	.092	.412
12.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은 도시보다 좋다	-.152	-.011	.744	-.096	-.056	-.054
11.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뭉čen강이 좋질 수 있다	.315	.087	.684	.101	.015	-.042
5.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 질 수 있다	.359	-.120	.677	.072	.087	-.120
2. 농촌에서도 도시만큼 편리하게 살 수 있다	.042	.078	.004	-.859	-.140	-.070
1. 농촌이 도시보다 더 살기 좋다	.173	-.146	.089	-.738	.231	.192
4. 농촌에서의 삶은 경제적 활동기회가 풍부하다	.126	.152	-.117	-.513	.043	-.428
18.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가질 수 있다	.018	-.017	-.074	.072	.882	-.057
19. 전문지식 경험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113	.045	.022	-.085	.835	.108
17.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	.379	-.022	.034	.099	.643	-.119
6. 손쉬운 일농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	.057	.229	.180	-.033	.006	-.736
20.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70	.007	.236	-.223	.329	-.49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a. 24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2] 농촌 이주 결정 요인 분석 결과

	성분					
	1	2	3	4	5	6
4. 행정서비스의 양호함	.858	-.102	.068	.040	.089	.112
5. 마을정보화의 진척정도	.852	.139	.038	.136	.061	.034
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751	-.202	-.060	-.087	.328	.003
6. 의료시설 수준의 양호함	.722	.060	-.094	-.342	-.184	-.012
7. 사회복지서비스노인 아동의 양호함	.524	.122	.166	-.349	-.182	-.061
10. 차안 및 방범상태	.482	.283	.129	-.318	-.313	-.220
14. 지역사회 자연환경	-.125	.808	.007	.019	.030	.166
17. 잡귀의 소음 및 악취	.031	.753	.000	-.058	.064	.219
18. 주택단지 내 녹지 조성시설	-.030	.733	-.128	-.060	.101	-.206
11. 이웃주민과의 관계	.270	.614	.345	.055	-.069	-.080
9. 농지 구입 및 임대의 용이성	.042	-.014	.920	.052	.031	-.040
8. 영농법과 농사기술 교육 여건	-.095	-.044	.898	-.108	.055	-.007
20.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성	.052	-.051	.077	-.833	-.078	.143
15. 문화 공연시설(극장, 전시관, 행사장 등)	-.110	.054	-.054	-.825	.083	-.109
19. 직장으로서의 접근성	-.054	.000	.197	-.722	.115	.131
16. 주변 편의시설(백화점, 병원, 금융기관 등)	.209	.045	-.105	-.700	.073	-.100
12. 주택 규모	.051	.053	.197	-.047	.796	-.078
13. 주택의 시설수준(부엌, 화장실, 세면장 등)	.162	.251	-.087	-.178	.642	.036
1. 경제적 여유 (지출 비용 절감)	.051	.081	-.066	-.029	-.069	.929
2. 자녀 교육 환경 시설 여건	.275	.130	.232	-.114	.203	.30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a. 13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표 4-3] 설문지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결과

측정도구	하위요인(문항수)	설문지번호	신뢰도(Cronbach's α)
농촌인식	삶의 여유(6)	9, 10, 13, 14, 15, 16	.897
	경제적 안정(3)	3, 7, 8	
	자연 환경(3)	5, 11, 12	
	주거 환경(3)	1, 2, 4	
	자존감(3)	17, 18, 19	
	경제적 지원(2)	6, 20	

문화적 여건(4)	15, 16, 19, 20
내부 주거환경(2)	12, 13
경제적 여건(2)	1,2

제 2 절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4]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	
성별	남		107(72.8)	
	여		40(27.2)	
연령	40대이하		61(41.5)	
	50대		69(46.9)	
	60대이상		17(11.6)	
교육	중졸이하		3(2.0)	
	고졸		29(19.7)	
	대졸이상		115(78.2)	
성장지역	대도시		82(55.8)	
	중소도시		30(20.4)	
	읍지역		15(10.2)	
	면이하		20(13.6)	
컨설팅 여부	있다		37(25.2)	
	없다		110(74.8)	
구 분			빈도(%)	
직업	자영업		26(17.7)	
	판매서비스직		8(5.4)	
	기능숙련직		1(0.7)	
	일반작업직		3(2.0)	
	사무기술직		37(25.2)	
	경영관리직		38(25.9)	
	전문자유직		20(13.6)	
주거형태	가정주부		14(9.5)	
	단독주택		24(16.3)	
	아파트		108(73.5)	
	연립,다세대		14(9.5)	
			기타	1(0.7)

연구대상 147명 중 남성이 107명(72.8%), 여성 40명(27.2%)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다. 연령은 50대가 46.9%로 가장 많고, 40대 이하가 41.5%, 60대 이상은 11.6%로 50대 이하가 87.4%이다. 학력은 78.5%(115명)가 대졸이상이고, 고졸(19.7%), 중졸이하(2%)순이다. 성장지역은 55.8%가 대도시이며, 중소도시는 20.4%, 읍지역 이하는 23.8%이다. 직업은 경영관리직이 25.9%로 가장 많고, 사무기술직(25.2%), 자영업(17.7%), 전문자유직(13.6%), 그 외(17.6%)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73.5%

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16.3%), 연립,다세대(9.5%), 기타(0.7%)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74.8%가 귀농·귀촌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다.

제 3 절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이주의사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이주 의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성장지역, 직업, 주거형태, 컨설팅여부를 선택하였으며, 이주의사는 이주의향, 선호, 농업소득, 영향, 이주이유, 농촌경험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이주의향은 이미이주 36.1%, 약간있음 33.3%, 아주많음 23.8%, 별로없음 4.1%, 전혀없음 2.7%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의 이주의향($\chi^2=18.248$, $p<.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이미 이주한 경우가 더 많으며 (남:26.2%, 여:62.5%), 남성은 이주의향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9.3%이지만 여성은 없다.

연령대로는 50대와 60대는 이미 이주한 비율이 높고 (50대: 39.1%, 60대:58.8%), 40대는 이주의향이 약간 있다(41.0%)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이주의향($\chi^2=26.944$, $p<.01$)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교육정도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는 중졸과 고졸은 이미 이주했거나 이주의향이 아주 많다는 응답이 중졸 66.6%, 고졸 93.1%인 반면 대졸이상은 약간 있거나 전혀없다는 응답이 48.7%로 고졸이하 학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chi^2=21.395$, $p<.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장지역($\chi^2=12.194$, $p<.05$)과 주거형태($\chi^2=12.360$, $p<.05$)는 이주의향의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61.5%)과 가정주부(85.7%)는 이미 이주하였고, 사무기술직은 43.2%가 이주 의향이 높으며, 판매서비스직(62.5%), 경영관리직(47.4%), 전문자유직(40.0%)는 이주의향이 약간 있다고 응답해 직업별 이주의향에는 차이가 있으며($=52.376$,

$p < .01$,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의향의 차이

		이주의향(%)					전체	χ^2	p
		이미이주	아주많음	약간있음	별로 없음	전혀 없음			
성별	남	28(26.2)	28(26.2)	41(38.3)	6(5.6)	4(3.7)	107(100)	18.248	.001
	여	25(62.5)	7(17.5)	8(20.0)	-	-	40(100)		
연령	40대이하	16(26.2)	17(27.9)	25(41.0)	2(3.3)	1(1.6)	61(100)	26.944	.001
	50대	27(39.1)	16(23.2)	23(33.3)	3(4.3)	-	69(100)		
	60대이상	10(58.8)	2(11.8)	1(5.9)	1(5.9)	3(17.6)	17(100)		
교육	중졸이하	1(33.3)	1(33.3)	1(33.3)	-	-	3(100)	21.395	.006
	고졸	20(69.0)	7(24.1)	2(6.9)	-	-	29(100)		
	대졸이상	32(27.8)	27(23.5)	46(40.0)	6(5.2)	4(3.5)	115(100)		
성장 지역	대도시	23(28.0)	20(24.4)	31(37.8)	5(6.1)	3(3.7)	82(100)	12.194	.430
	중소도시	15(50.0)	7(23.3)	7(23.3)	-	1(3.3)	30(100)		
	읍지역	9(60.0)	3(20.0)	3(20.0)	-	-	15(100)		
	면이하	6(30.0)	5(25.0)	8(40.0)	1(5.0)	-	20(100)		
직업	자영업	16(61.5)	4(15.4)	6(23.1)	-	-	26(100)	52.376	.003
	판매서비스직	2(25.0)	1(12.5)	5(62.5)	-	-	8(100)		
	기능숙련직	1(100)	-	-	-	-	1(100)		
	일반작업직	1(33.3)	1(33.3)	1(33.3)	-	-	3(100)		
	사무기술직	9(24.3)	16(43.2)	10(27.0)	1(2.7)	1(2.7)	37(100)		
	경영관리직	7(18.4)	6(15.8)	18(47.4)	4(10.5)	3(7.9)	38(100)		
	전문자유직	5(25.0)	6(30.0)	8(40.0)	1(5.0)	-	20(100)		
	가정주부	12(85.7)	1(7.1)	1(7.1)	-	-	14(1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11(45.8)	6(25.0)	7(29.2)	-	-	24(100)	12.360	.417
	아파트	32(29.6)	28(25.9)	39(36.1)	5(4.6)	4(3.7)	108(100)		
	연립,다세대	9(64.3)	1(7.1)	3(21.4)	1(7.1)	-	14(100)		
	기타	1(100)	-	-	-	-	1(100)		
전체		53(36.1)	35(23.8)	49(33.3)	6(4.1)	4(2.7)	147(100)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귀농·귀촌 선호는 의향 없음, 귀농·귀촌으로 구분하였으며 의향없음 6.8%, 귀농 26.5%, 귀촌 66.7%로 귀농보다는 귀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남(65.4%),녀(70.0%) 모두 귀촌을 선호($\chi^2=4.079$, $p<.05$)하였으며, 연령별로는 귀촌을 선호하는 비율이 전 연령대 모두 높지만 (40대이하 75.4%, 50대 62.3%, 60대이상 52.9%), 60대의 23.5%가 의향 없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선호 ($\chi^2=11.640$, $p<.05$)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성장지역($\chi^2=3.935$, $p<.05$)과 주거형태($\chi^2=6.482$, $p<.05$)에 따른 선호의 없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은 귀농과 귀촌이 각각 50%로 차이가 없지만 기능숙련직(100%), 일반작업직(66.7%)는 귀농을 선호하고 판매서비스직(62.5%), 사무기술직(70.3%), 경영관리직(65.8%), 전문관리직(90%), 가정주부(71.4%)는 귀촌을 더 선호($\chi^2=30.162$, $p<.01$)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 4-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선호의 차이

		선호 (%)			전체	χ^2	p
		의향없음	귀농	귀촌			
성별	남	10(9.3)	27(25.2)	70(65.4)	107(100)	4.079	.130
	여	-	12(30.0)	28(70.0)	40(100)		
연령	40대이하	3(4.9)	12(19.7)	46(75.4)	61(100)	11.640	.020
	50대	3(4.3)	23(33.3)	43(62.3)	69(100)		
	60대이상	4(23.5)	4(23.5)	9(52.9)	17(100)		
교육	중졸이하	-	2(66.7)	1(33.3)	3(100)	23.668	.000
	고졸	-	17(58.6)	12(41.4)	29(100)		
	대졸이상	10(8.7)	20(17.4)	85(73.9)	115(100)		
성장 지역	대도시	8(9.8)	19(23.2)	55(67.1)	82(100)	3.935	.685
	중소도시	1(3.3)	10(33.3)	19(63.3)	30(100)		
	읍지역	-	5(33.3)	10(66.7)	15(100)		
	면이하	1(5.0)	5(25.0)	14(70.0)	20(100)		
직업	자영업	-	13(50.0)	13(50.0)	26(100)	30.162	.007
	판매서비스직	-	3(37.5)	5(62.5)	8(100)		
	기능숙련직	-	1(100)	-	1(100)		
	일반작업직	-	2(66.7)	1(33.3)	3(100)		
	사무기술직	2(5.4)	9(24.3)	26(70.3)	37(100)		
	경영관리직	7(18.4)	6(15.8)	25(65.8)	38(100)		
	전문자유직	1(5.0)	1(5.0)	18(90.0)	20(100)		
	가정주부	-	4(28.6)	10(71.4)	14(1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	9(37.5)	15(62.5)	24(100)	6.482	.371
	아파트	9(8.3)	25(23.1)	74(68.5)	108(100)		
	연립,다세대	1(7.1)	4(28.6)	9(64.3)	14(100)		
	기타	-	1(100)	-	1(100)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생활비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귀농·귀촌 의향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6.8%)으로 처리하였으며, 0%(52.4%), 30%이하(27.9%), 50%미만(4.8%), 50%이상(8.2%)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업소득의 차이

		농업소득(%)					전체	χ^2	p
		해당없음	0%	30%이하	50%미만	50%이상			
성별	남	10(9.3)	52(48.6)	35(32.7)	4(3.7)	6(5.6)	107(100)	12.098	.017
	여	-	25(62.5)	6(15.0)	3(7.5)	6(15.0)	40(100)		
연령	40대이하	3(4.9)	38(62.3)	14(23.0)	2(3.3)	4(6.6)	61(100)	12.638	.125
	50대	3(4.3)	33(47.8)	23(33.3)	4(5.8)	6(8.7)	69(100)		
	60대이상	4(23.5)	6(35.3)	4(23.5)	1(5.9)	2(11.8)	17(100)		
교육	중졸이하	-	1(33.3)	1(33.3)	-	1(33.3)	3(100)	28.230	.000
	고졸	-	9(31.0)	9(31.0)	5(17.2)	6(20.7)	29(100)		
	대졸이상	10(8.7)	67(58.3)	31(27.0)	2(1.7)	5(4.3)	115(100)		
성장 지역	대도시	8(9.8)	44(53.7)	19(23.2)	3(3.7)	8(9.8)	82(100)	13.895	.307
	중소도시	1(3.3)	16(53.3)	9(30.0)	1(3.3)	3(10.0)	30(100)		
	읍지역	-	11(73.3)	3(20.0)	1(6.7)	-	15(100)		
	면이하	1(5.0)	6(30.0)	10(50.0)	2(10.0)	1(5.0)	20(100)		
직업	자영업	-	9(34.6)	10(38.5)	1(3.8)	6(23.1)	26(100)	56.391	.001
	판매서비스직	-	5(62.5)	1(12.5)	2(25.0)	-	8(100)		
	기능숙련직	-	-	1(100)	-	-	1(100)		
	일반작업직	-	-	1(33.3)	-	2(66.7)	3(100)		
	사무기술직	2(5.4)	23(62.2)	8(21.6)	2(5.4)	2(5.4)	37(100)		
	경영관리직	7(18.4)	17(44.7)	13(34.2)	-	1(2.6)	38(100)		
	전문자유직	1(5.0)	13(65.0)	5(25.0)	1(5.0)	-	20(100)		
	가정주부	-	10(71.4)	2(14.3)	1(7.1)	1(7.1)	14(1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	9(37.5)	10(41.7)	2(8.3)	3(12.5)	24(100)	11.685	.471
	아파트	9(8.3)	59(54.6)	28(25.9)	5(4.6)	7(6.5)	108(100)		
	연립,다세대	1(7.1)	9(64.3)	2(14.3)	-	2(14.3)	14(100)		
	기타	-	-	1(100)	-	-	1(100)		
전체		10(6.8)	77(52.4)	41(27.9)	7(4.8)	12(8.2)	147(100)		

성별에 따른 농업소득은 남성과 여성 모두 0%이하가 50%이상이지만 생활비 중 농업소득 이 30%이하는 남성(32.7%)이 여성(15.0%)보다 많고 50%이상은 남성(5.6%)보다 여성(15.0%)이 더 많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12.098, $p<.05$). 연령(=12.638, $p<.05$), 성장지역(=13.895, $p<.05$), 주거형태(=11.685, $p<.05$)에

다른 농업소득의 차이는 없으며, 교육은 중졸과 고졸은 농업소득의 비중이 30%보다 많은 경우가 33%이상이지만 대졸이상은 6%에 불과해 교육정도($\chi^2=28.230$, $p<.001$)에 따라 농업소득에서 차이가 있다. 직업은 판매서비스직(62.5%), 사무기술직(62.2%), 경영관리직(44.7%), 전문자유직(65%), 가정주부(71.44%)은 농업소득이 0%이지만 자영업(23.1%), 일반작업직(66.7%)은 농업소득이 50%이상이어서 직업에 따른 농업소득($\chi^2=56.391$, $p<.01$)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경험의 차이

농촌경험은 농촌거주(42.2%), 농사경험(13.6%), 직장, 학교, 사업(3.4%), 경험없음(40.8%)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경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농촌경험의 차이

		농촌경험 (%)				전체	χ^2	p
		농촌거주	농사경험	직장, 학교, 사업	경험없음			
성별	남	45(42.1)	15(14.0)	3(2.8)	44(41.1)	107(100)	.473	.925
	여	17(42.5)	5(12.5)	2(5.0)	16(40.0)			
연령	40대이하	21(34.4)	7(11.5)	1(1.6)	32(52.5)	61(100)	7.114	.310
	50대	34(49.3)	11(15.9)	3(4.3)	21(30.4)			
	60대이상	7(41.2)	2(11.8)	1(5.9)	7(41.2)			
교육	중졸이하	1(33.3)	1(33.3)	-	1(33.3)	3(100)	9.488	.148
	고졸	14(48.3)	7(24.1)	2(6.9)	6(20.7)			
	대졸이상	47(40.9)	12(10.4)	3(2.6)	53(46.1)			
성장 지역	대도시	22(26.8)	8(9.8)	-	52(63.4)	82(100)	53.354	.000
	중소도시	18(60.0)	2(6.7)	2(6.7)	8(26.7)			
	읍지역	8(53.3)	5(33.3)	2(13.3)	-			
	면이하	14(70.0)	5(25.0)	1(5.0)	-			
직업	자영업	13(50.0)	5(19.2)	-	8(30.8)	26(100)	24.985	.248
	판매서비스직	4(50.0)	2(25.0)	-	2(25.0)			
	기능숙련직	-	-	-	1(100)			

주거 형태	전문자유직	9(45.0)	3(15.0)	－	8(40.0)	20(100)	12,886	.168
	가정주부	5(35.7)	1(7.1)	2(14.3)	6(42.9)	14(100)		
	단독주택	14(58.3)	3(12.5)	1(4.2)	6(25.0)	24(100)		
	아파트	44(40.7)	15(13.9)	4(3.7)	45(41.7)	108(100)		
	연립,다세대	4(28.6)	1(7.1)	－	9(64.3)	14(100)		
	기타	－	1((100)	－	－	1(100)		
전체		62(42.2)	20(13.6)	5(3.4)	60(40.8)	147(100)		

성별($\chi^2=.473$, $p<.05$), 연령($\chi^2=7.114$, $p<.05$), 교육($\chi^2=9.488$, $p<.05$), 직업($\chi^2=24.985$, $p<.05$), 주거형태($\chi^2=12.886$, $p<.05$)에 따른 농촌경험의 차이는 없으며, 성장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63.4%가 농사경험이 없고, 중소도시이하 지역은 50%이상이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어 대도시와 다른 지역들($\chi^2=53.354$,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영향의 차이

이주영향은 농촌으로의 이주했거나 이주의향에 영향을 주신 분에 대해 해당없음(8.2%), 부모,형제(18.4%), 배우자(40.8%), 친구 또는 선후배(17.0%), 귀농·귀촌 컨설팅(15.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영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영향의 차이

		이주영향 (%)					전체	χ^2	p
		해당없음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또는 선후배	귀농·귀촌컨 설팅			
성별	남	12(11.2)	21(19.6)	37(34.6)	20(18.7)	17(15.9)	107(100)	9.244	.055
	여	–	6(15.0)	23(57.5)	5(12.5)	6(15.0)	40(100)		
연령	40대이하	3(4.9)	16(26.2)	23(37.7)	15(24.6)	4(6.6)	61(100)	19.152	.014
	50대	5(7.2)	9(13.0)	31(44.9)	8(11.6)	16(23.2)	69(100)		
	60대이상	4(23.5)	2(11.8)	6(35.3)	2(11.8)	3(17.6)	17(100)		
교육	중졸이하	–	1(33.3)	2(66.7)	–	–	3(100)	5.494	.704
	고졸	1(3.4)	7(24.1)	14(48.3)	4(13.8)	3(10.3)	29(100)		

	면이하	1(5.0)	9(45.0)	2(10.0)	1(5.0)	7(35.0)	20(100)		
직업	자영업	-	7(26.9)	12(46.2)	3(11.5)	4(15.4)	26(100)	39.676	.071
	판매서비스직	-	2(25.0)	3(37.5)	3(37.5)	-	8(100)		
	기능숙련직	-	-	1(100)	-	-	1(100)		
	일반작업직	-	-	3(100)	-	-	3(100)		
	사무기술직	2(5.4)	10(27.0)	13(35.1)	9(24.3)	3(8.1)	37(100)		
	경영관리직	8(21.1)	4(10.5)	9(23.7)	7(18.4)	10(26.3)	38(100)		
	전문자유직	2(10.0)	1(5.0)	11(55.0)	2(10.0)	4(20.0)	20(100)		
	가정주부	-	3(21.4)	8(57.1)	1(7.1)	2(14.3)	14(1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	3(12.5)	10(41.7)	4(16.7)	7(29.2)	24(100)	13.836	.311
	아파트	11(10.2)	21(19.4)	42(38.9)	18(16.7)	16(14.8)	108(100)		
	연립,다세대	1(7.1)	2(14.3)	8(57.1)	3(21.4)	-	14(100)		
	기타	-	1(100)	-	-	-	1(100)		
컨설팅 여부	있다	-	4(10.8)	21(56.8)	4(10.8)	8(21.6)	37(100)	10.896	.028
	없다	12(10.9)	23(20.9)	39(35.5)	21(19.1)	15(13.6)	110(100)		
	전체	12(8.2)	27(18.4)	60(40.8)	25(17.0)	23(15.6)	147(100)		

성별($\chi^2=9.244$, $p<.05$), 교육($\chi^2=5.494$, $p<.05$), 직업($\chi^2=39.676$, $p<.05$), 주거형태($\chi^2=13.836$, $p<.05$)에 따른 이주영향의 차이는 없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배우자(37.7%), 부모형제(26.2%), 친구 또는 선후배(24.6%) 순으로 영향을 받았고, 50대는 배우자(44.9%), 귀농·귀촌 컨설팅(23.2%), 부모형제(13.0%), 60대 이상은 배우자(35.3%), 해당없음(23.5%), 귀농·귀촌 컨설팅(17.6%) 순으로 영향을 받아서 연령대별 이주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다($\chi^2=19.152$, $p<.05$) 성장지역별로는 대도시(40.2%), 중소도시(56.7%), 읍지역(53.3%)은 배우자의 영향이 많지만 면이하에서 성장한 경우는 45.0%가 부모형제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은 귀농·귀촌 컨설팅이 35%로 나타나 성장지역별로 이주영향($\chi^2=32.032$, $p<.01$)에 차이가 있다. 귀농·귀촌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56.8%), 귀농·귀촌 컨설팅(21.6%)의 영향이 크고, 컨설팅 경험이 없는 그룹은 배우자(35.5%), 부모형제(20.9%)의 영향이 더 크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chi^2=10.896$, $p<.05$)

3.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이유의 차이

이주이유는 해당없음(6.8%), 농촌좋음(17.0%), 노후대비(46.9%), 자녀교육(4.1%), 가족건강(18.4%), 생활비절약(4.1%), 기타(2.7%)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다른 이주이유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주이유의 차이

		이주이유 (%)							전체	χ^2	p
		해당 없음	농촌 좋음	노후 대비	자녀 교육	가족 건강	생활비 절약	기타			
성별	남	109.3	13(12.1)	52(48.6)	4(3.7)	22(20.6)	3(2.8)	3(2.8)	107(100)	12.151	.059
	여	-	12(30.0)	17(42.5)	2(5.0)	5(12.5)	3(7.5)	1(2.5)	40(100)		
연령	40대이하	3(4.9)	10(16.4)	26(42.6)	4(6.6)	14(23.0)	3(4.9)	1(1.6)	61(100)	17.864	.120
	50대	3(4.3)	12(17.4)	36(52.2)	2(2.9)	12(17.4)	1(1.4)	3(4.3)	69(100)		
	60대이상	4(23.5)	3(17.6)	7(41.2)	-	1(5.9)	2(11.8)	-	17(100)		
교육	중졸이하	-	2(6.7)	-	-	-	1(3.3)	-	3(100)	34.736	.001
	고졸	-	6(20.7)	8(27.6)	3(10.3)	6(20.7)	4(13.8)	2(6.9)	29(100)		
	대졸이상	10(8.7)	17(14.8)	61(53.0)	3(2.6)	21(18.3)	1(0.9)	2(1.7)	115(100)		
성장 지역	대도시	8(9.8)	14(17.1)	40(48.8)	3(3.7)	12(14.6)	2(2.4)	3(3.7)	82(100)	17.369	.498
	중소도시	1(3.3)	4(13.3)	11(36.7)	2(6.7)	11(36.7)	1(3.3)	-	3(100)		
	읍지역	-	4(26.7)	8(53.3)	-	2(13.3)	1(6.7)	-	15(100)		
	면이하	1(5.0)	3(15.0)	10(50.0)	1(5.0)	2(10.0)	2(10.0)	1(5.0)	20(100)		
직업	자영업	-	10(38.5)	8(30.8)	1(3.8)	5(19.2)	2(7.7)	-	26(100)	89.700	.000
	판매서비스직	-	1(12.5)	4(50.0)	-	2(25.0)	-	1(12.5)	8(100)		
	기능숙련직	-	-	-	1(100)	-	-	-	1(100)		
	일반작업직	-	-	1(33.3)	-	1(33.3)	-	1(33.3)	3(100)		
	사무기술직	2(5.4)	4(10.8)	15(40.5)	3(8.1)	11(29.7)	2(5.4)	-	37(100)		
	경영관리직	7(18.4)	4(10.5)	20(52.6)	-	7(18.4)	-	-	38(100)		
	전문자유직	1(5.0)	2(10.0)	14(70.0)	1(5.0)	-	-	2(10.0)	20(100)		
	가정주부	-	4(28.6)	7(50.0)	-	1(7.1)	2(14.3)	-	14(100)		
주거 형태	단독주택	-	7(29.2)	11(45.8)	1(4.2)	2(8.3)	1(4.2)	2(8.3)	24(100)	41.847	.001
	아파트	9(8.3)	14(13.0)	56(51.9)	4(3.7)	21(19.4)	3(2.8)	1(0.9)	108(100)		
	연립,다세대	1(7.1)	4(28.6)	2(14.3)	1(7.1)	4(28.6)	1(7.1)	1(7.1)	14(100)		
	기타	-	-	-	-	-	1(100)	-	1(100)		
전체		10(6.8)	25(17.0)	69(46.9)	6(4.1)	27(18.4)	6(4.1)	4(2.7)	147(100)		

성별로는 남녀 모두 노후대비가 42%이상으로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chi^2=12.151$, $p<.05$), 연령($\chi^2=17.864$, $p<.05$), 성장지역($\chi^2=17.369$, $p<.05$)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교육은 중졸이하는 66.7%가 농촌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여 노후 대비 때문이라는 고졸(27.6%), 대졸이상(53%)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chi^2=34.736$, $p<.01$)가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은 농촌좋음(38.5%), 기능숙련직은 자녀교육(100%)으로 이주이유를 답해 노후대비가 가장 높은 다른 직업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87.900$, $p<.001$).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45.8%), 아파트(51.9%)가 노후대비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연립,다세대는 농촌좋음

(28.6%), 가족건강(28.6%)이 높고 기타의 경우 생활비절약(100%)이 가장 높아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chi^2=41.847$, $p<.01$)

제 4 절 컨설팅 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이주 의사의 차이

4.1 컨설팅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컨설팅여부(있다: 25.2%, 없다 74.8%)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 성장지역, 직업, 주거형태를 변수로 선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1] 컨설팅여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차이

		컨설팅여부(%)		전체	χ^2	p
		있다	없다			
성별	남	20(18.7)	87(81.3)	107(100)	8.762	.003
	여	17(42.5)	23(57.5)	40(100)		
연령	40대이하	11(18.0)	50(82.0)	61(100)	3.108	.211
	50대	20(29.0)	49(71.0)	69(100)		
	60대이상	6(35.3)	11(64.7)	17(100)		
교육	중졸이하	1(33.3)	2(66.7)	3(100)	.810	.667
	고졸	9(31.0)	20(69.0)	29(100)		
	대졸이상	27(23.5)	88(76.5)	115(100)		
성장지역	대도시	15(18.3)	67(81.7)	82(100)	6.093	.107
	중소도시	12(40.0)	18(60.0)	30(100)		
	읍지역	5(33.3)	10(66.7)	15(100)		
	면이하	5(25.0)	15(75.0)	20(100)		
직업	자영업	7(26.9)	19(73.1)	26(100)	15.335	.032
	판매서비스직	1(12.5)	7(87.5)	8(100)		
	기능숙련직	-	1(100)	1(100)		
	일반작업직	-	3(100)	3(100)		
	사무기술직	7(18.9)	30(81.1)	37(100)		
	경영관리직	10(26.3)	28(73.7)	38(100)		
	전문자유직	3(15.0)	17(85.0)	20(100)		
	가정주부	9(64.3)	5(35.7)	14(100)		
주거형태	단독주택	6(25.0)	18(75.0)	24(100)	1.232	.745
	아파트	26(24.1)	82(75.9)	108(100)		
	연립,다세대	5(35.7)	9(64.3)	14(100)		

성별로는 여성(42.5%)이 남성(18.7%)보다 컨설팅을 받은 비율이 높고($\chi^2=8.762$, $p<.01$)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연령($\chi^2=3.108$, $p<.05$), 교육($\chi^2=.810$, $p<.05$), 성장지역($\chi^2=6.093$, $p<.05$), 주거형태($\chi^2=1.232$, $p<.05$)는 컨설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직업은 가정주부가 다른 직업에 비해 컨설팅을 더 많이 받았으며 ($\chi^2=15.335$, $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4.2 컨설팅여부에 따른 이주의사의 차이

컨설팅여부에 따른 농촌이주의사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주의향, 선호, 농업소득, 영향, 이유, 농촌경험을 변수로 선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2] 컨설팅여부에 따른 이주의사의 차이

		컨설팅여부(%)		전체	χ^2	p
		있다	없다			
이주의향	이미이주	27(50.9)	26(49.1)	53(100)	31.991	.000
	아주많음	7(20.0)	28(80.0)	35(100)		
	약간있음	3(6.1)	46(93.9)	49(100)		
	별로없음	-	6(100)	6(100)		
	전혀없음	-	4(100)	4(100)		
선호	의향없음	-	10(100)	10(100)	7.519	.023
	귀농	6(15.4)	33(84.6)	39(100)		
	귀촌	31(31.6)	67(68.4)	98(100)		
농업소득	해당없음	-	10(100)	10(100)	4.414	.353
	0%	21(27.3)	56(72.7)	77(100)		
	30%이하	12(29.3)	29(70.7)	41(100)		
	50%미만	2(28.6)	5(71.4)	7(100)		
	50%이상	2(16.7)	10(83.3)	12(100)		
영향	해당없음	-	12(100)	12(100)	10.896	.028
	부모, 형제	4(14.8)	23(85.2)	27(100)		
	배우자	21(35.0)	39(65.0)	60(100)		
	친구또는 선후배	4(16.0)	21(84.0)	25(100)		
	귀농-귀촌컨설팅	8(34.8)	15(65.2)	23(100)		
이유	해당없음	-	10(100)	10(100)	8.429	.208
	농촌좋음	7(28.0)	18(72.0)	25(100)		
	노후대비	22(31.9)	47(68.1)	69(100)		
	자녀교육	2(33.3)	4(66.7)	6(100)		
	가족건강	4(14.8)	23(85.2)	27(100)		
	생활비절약	2(33.3)	4(66.7)	6(100)		

경험없음	11(18.3)	49(81.7)	60(100)
전체	37(25.2)	110(74.8)	147(100)

이주의향($\chi^2=31.991$, $p<.001$)에서 이미 이주한 경우는 50.9%가 컨설팅을 받았고, 이주의향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지 않는 비율이 더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귀농이나 귀촌을 선호하는 경우는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귀농-귀촌 컨설팅을 받지 않았고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chi^2=7.519$, $p<.05$). 농업소득($\chi^2=4.414$, $p<.05$), 이주이유($\chi^2=8.429$, $p<.05$), 농촌경험($\chi^2=4.010$, $p<.05$)은 컨설팅 여부의 차이가 없으며, 컨설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35.0)와 귀농-귀촌 컨설팅(34.8%)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컨설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100%)과 부모형제(85.2%)의 영향이 많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chi^2=10.896$, $p<.05$)

제 5 절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 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는 귀농-귀촌의향이 없는 10명의 자료를 제외한 137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5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농촌인식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의사결정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5.1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의 차이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인식 요인과 하위요인인 삶의 여유, 경제적 안정, 자연환경, 주거환경, 자존감, 경제적 지원을 변수로 선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3]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의 차이

			M	S.E	F	p	비고
농촌인식			귀농	3.728	.549		
			귀촌	3.665	.360		
			합계	3.683	.421		
하위요인	삶의여유	귀농	4.141	.547	1.387	.241	n=137 귀농: 39 귀촌: 98
		귀촌	4.031	.473			
		합계	4.062	.496			
	경제적안정	귀농	3.530	.724	.515	.474	
		귀촌	3.616	.591			
		합계	3.591	.630			
	자연환경	귀농	4.308	.632	1.300	.256	
		귀촌	4.418	.457			
		합계	4.387	.513			
	주거환경	귀농	3.085	.929	1.054	.306	
		귀촌	2.939	.674			
		합계	2.981	.755			
	자존감	귀농	3.641	.681	1.447	.231	
		귀촌	3.483	.699			
		합계	3.528	.695			
	경제적지원	귀농	3.013	.956	.759	.385	
		귀촌	2.878	.760			
		합계	2.916	.819			

5.2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인과 하위 요인인 행정의료서비스, 외부주거환경, 영농여건, 문화적여건, 내부주거환경, 경제적 여건을 변수로 선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4]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

			M	S.E	F	p	비고	
의사결정			귀농	3.629	.626	4.185	.043	n=137 귀농: 39 귀촌: 98
			귀촌	3.383	.640			
			합계	3.453	.643			
하위요인	행정, 의료서비스	귀농	3.534	.889	1.184	.279		
		귀촌	3.350	.894				
		합계	3.403	.893				
	외부주거환경	귀농	3.962	.670	.977	.325		
		귀촌	3.829	.722				
		합계	3.867	.708				
	영농여건	귀농	3.756	.952	12.190	.001		
		귀촌	3.133	.940				
		합계	3.310	.982				
	문화적여건	귀농	3.519	.836	4.860	.029		
		귀촌	3.168	.842				
		합계	3.268	.852				
	내부주거환경	귀농	3.872	.625	.021	.885		
		귀촌	3.852	.754				
		합계	3.858	.717				
	경제적여건	귀농	3.295	.732	2.673	.104		
		귀촌	3.056	.786				
		합계	3.124	.776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귀농인이 농촌으로 귀농을 결심했을 때 귀촌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영농여건($F=12.190$, $p<.01$), 문화적여건($F=4.860$, $p<.05$)이다. 이밖에 행정의료서비스와 외부주거환경, 내부주거환경, 경제적여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귀농인과 귀촌인 모두 외부주거환경(귀농: $m=3.962$, 귀촌: $m=3.829$)과 내부주거환경(귀농: $m=3.872$, 귀촌: $m=3.852$)을 다른 요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적 여건(귀농: $m=3.295$, 귀촌: $m=3.056$)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낮다.

제 6 절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인식 요인과 하위요인인 삶의여유, 경제적 안정, 자연환경, 주거환경, 자존감, 경제적 지원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농촌인식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인과 하위요인인 행정의료서비스, 외부주거환경, 영농여건, 문화적여건, 내부주거환경, 경제적 여건을 변수로 선택하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5점 리커드 척도의 평균을 농촌인식요인은 부정과 긍정으로 구분하였고, 의사결정요인은 중요도를 낮음과 높음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6.1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귀농인과 귀농 의향자의 농촌인식 및 하위요인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표 4-15]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귀농		귀농 이주의향(%)		전체	χ^2	p
		이미이주	의향있음			
인식요인	부정	10(52.6)	6(30.0)	16(41.0)	2.063	.200
	긍정	9(47.4)	14(70.0)	23(59.0)		
삶의여유	부정	2(10.5)	3(15.0)	5(12.8)	.174	1.000
	긍정	17(89.5)	17(85.0)	34(87.2)		
경제적안정	부정	11(57.9)	9(45.0)	20(51.3)	.648	.527
	긍정	8(42.1)	11(55.0)	19(48.7)		
자연환경	부정	5(26.3)	-	5(12.8)	6.037	.020
	긍정	14(73.7)	20(100)	34(87.2)		
주거환경	부정	14(73.7)	13(65.0)	27(69.2)	.345	.731
	긍정	5(26.3)	7(35.0)	12(30.8)		
자존감	부정	9(47.4)	8(40.0)	17(43.6)	.215	.751
	긍정	10(52.6)	12(60.0)	22(56.4)		
경제적지원	부정	15(78.9)	14(70.0)	29(74.4)	.409	.716
	긍정	4(21.1)	6(30.0)	10(25.6)		
전체		19(100)	20(100)	39(100)		

귀농인과 이주의향자의 농촌인식 전체에 대해 이미 이주한 경우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의향자는 긍정적이 응답이 많지만 ($\chi^2=2.063$,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하위요인별로는 자연환경에 대해 귀농인(이미 이주)은 부정적인 응답이 있는 반면 의향자는 긍정적인 반응만 있어 귀농자와 귀농의향자의 자연환경($\chi^2=6.037$, $p<.05$)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인식의 하위요인 중 삶의 여유에 대해서는 85%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경제적 안정은 귀농인은 부정(57.9%), 의향자는 긍정(55%)이고, 주거환경은 모두 부정(이미 이주 73.7%, 의향있음 65.0%)적이다. 자존감은 긍정이 많고(이미 이주 52.6%, 의향있음 56.4%), 경제적지원은 부정(이미 이주 78.9%, 의향있음 70.0%)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6.2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이주 의사결정요인의 차이

[표 4-16]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귀농의사결정요인의 차이

귀농		귀농 이주의향(%)		전체	χ^2	p
		이미이주	의향있음			
결정요인	낮음	8(42.1)	5(25.0)	13(33.3)	1.283	.320
	높음	11(57.9)	15(75.0)	26(66.7)		
행정, 의료서비스	낮음	8(42.1)	6(30.0)	14(35.9)	.620	.514
	높음	11(57.9)	14(70.0)	25(64.1)		
외부주거환경	낮음	4(21.1)	4(20.0)	8(20.5)	.007	1.000
	높음	15(78.9)	16(80.0)	31(79.5)		
영농여건	낮음	4(21.1)	8(40.0)	12(30.8)	1.642	.301
	높음	15(78.9)	12(60.0)	27(69.2)		
문화적여건	낮음	9(47.4)	6(30.0)	15(38.5)	1.242	.333
	높음	10(52.6)	14(70.0)	24(61.5)		
내부주거환경	낮음	3(15.8)	1(5.0)	4(10.3)	1.232	.342
	높음	16(84.2)	19(95.0)	35(89.7)		
경제적여건	낮음	9(47.4)	11(55.0)	20(51.3)	.227	.752
	높음	10(52.6)	9(45.0)	19(48.7)		
전체		19(100)	20(100)	39(100)		

귀농의사결정의 중요도 : 낮음 < 3.46 < 높음

귀농인과 귀농의향자의 농촌이주이사 결정요인은 결정요인 및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귀농을 결심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두 그룹 모두 내부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고(이미이주 84.2%, 의향있음 95.0%), 그 다음은 이미이주는 외부주거환경(78.9%)과 영농여건(78.9%)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귀농의향자는 외부주거환경(80%)과 문화적여건(70%), 행정의료서비스(70.0%)의 중요도가 높다.

6.3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분석결과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농촌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어 두 그룹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7]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의 차이

귀촌		귀촌 이주의향(%)		전체	χ^2	p
		이미이주	의향있음			
인식요인	부정	17(50.0)	30(46.9)	47(48.0)	.087	.833
	긍정	17(50.0)	34(53.1)	51(52.0)		
삶의여유	부정	7(20.6)	9(14.1)	16(16.3)	.692	.406
	긍정	27(79.4)	55(85.9)	82(83.7)		
경제적안정	부정	14(41.2)	20(31.3)	34(34.7)	.966	.376
	긍정	20(58.8)	44(68.8)	64(65.3)		
자연환경	부정	2(5.9)	1(1.6)	3(3.1)	1.396	.275
	긍정	32(94.1)	63(98.4)	95(96.9)		
주거환경	부정	26(76.5)	52(81.3)	78(79.6)	.312	.605
	긍정	8(23.5)	12(18.8)	20(20.4)		
자존감	부정	17(50.0)	30(46.9)	47(48.0)	.087	.833
	긍정	17(50.0)	34(53.1)	51(52.0)		
경제적지원	부정	29(85.3)	56(87.5)	85(86.7)	.094	.762
	긍정	5(14.7)	8(12.5)	13(13.3)		
전체		34(100)	64(100)	98(100)		

농촌인식 : 부정 < 3.61 < 긍정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경제적지원(귀촌 85.3%, 의향자 87.5%)과 주거환경(귀촌 76.5%, 의향자 81.3%)이며, 긍정적 것은 자연환경(귀촌 94.1%, 의향자 98.4%)과 삶의 여유(귀촌 79.4%, 의향자 85.9%), 경제적 안정(귀촌 58.8%, 의향자 68.8%)이다. 자존감은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다.

6.4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귀촌의사결정의 차이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귀촌의사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귀촌을 결심했을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중요도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18] 귀촌인과 귀촌의향자의 귀촌의사결정요인의 차이

귀촌		귀촌 이주의향(%)		전체	χ^2	p
		이미이주	의향있음			
결정요인	낮음	22(64.7)	29(45.3)	51(52.0)	3.346	.090
	높음	12(35.3)	35(54.7)	47(48.0)		
행정,의료서비스	낮음	18(52.9)	26(40.6)	44(44.9)	1.361	.289
	높음	16(47.1)	38(59.4)	54(55.1)		
외부주거환경	낮음	10(29.4)	9(14.1)	19(19.4)	3.347	.105
	높음	24(70.6)	55(85.9)	79(80.6)		
영농여건	낮음	23(67.6)	38(59.4)	61(62.2)	.647	.513
	높음	11(32.4)	26(40.6)	37(37.8)		
문화적여건	낮음	24(70.6)	34(53.1)	58(59.2)	2.803	.131
	높음	10(29.4)	30(46.9)	40(40.8)		
내부주거환경	낮음	8(23.5)	9(14.1)	17(17.3)	1.388	.270
	높음	26(76.5)	55(85.9)	81(82.7)		
경제적여건	낮음	24(70.6)	38(59.4)	62(63.3)	1.201	.379
	높음	10(29.4)	26(40.6)	36(36.7)		
전체		34(100)	64(100)	98(100)		

귀촌의사결정의 중요도 : 낮음 < 3.46 < 높음

결정요인 전체적으로 이미 이주한 경우는 중요도가 낮다(64.7%)가 많고 의향자는 높다(54.7%)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도가 낮다고 한 것은 경제적여건(귀촌 70.6%, 의향자 59.4%), 문화적여건(귀촌 70.6%, 의향자 53.1%), 영농여건(귀촌 52.9%, 59.4%)이며, 중요도가 높은 것은 내부주거환경(귀촌 76.5%, 의향자 85.9%), 외부주거환경(귀촌 70.6%, 의향자 85.9%)이고 행정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귀촌인은 중요도가 낮음(52.9%)이 더 많고 귀촌의향자는 중요도가 높음

(59.4%)으로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제 7 절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 이주 의사결정과의 관계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이주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농촌인식하위 요인과 농촌이주의사결정하위요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9]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이주의사결정과의 관계

농촌인식 의사결정	삶의 여유	경제적안정	자연환경	주거환경	자존감	경제적지원
행정, 의료서비스	.211*	.186*	.214**	.231**	.244**	.164*
외부주거환경	.326**	.170*	.275**	.285**	.366**	.162
영농여건	.344**	.104	.176*	.326**	.392**	.239**
문화적여건	.192*	.092	.233**	.243**	.229**	.150
내부주거환경	.325**	.167*	.265**	.294**	.350**	.141
경제적여건	.276**	.315**	.203*	.372**	.429**	.277**

* p<.05, **p<.01, ***p<.001

분석결과 농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농촌이주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진다. 행정의료 서비스는 삶의 여유($r=.211$, $p<.05$), 경제적 안정($r=.186$, $p<.05$), 자연환경($r=.214$, $p<.01$), 주거환경($r=.231$, $p<.01$), 자존감($r=.244$, $p<.01$), 경제적 지원($r=.164$, $p<.05$)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외부주거환경은 삶의 여유($r=.326$, $p<.01$), 경제적 안정($r=.170$, $p<.05$), 자연환경($r=.275$, $p<.01$), 주거환경($r=.285$, $p<.01$), 자존감($r=.36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다. 영농여건은 삶의 여유($r=.344$, $p<.01$), 자연환경($r=.176$, $p<.05$), 주거환경($r=.326$, $p<.01$), 자존감($r=.392$, $p<.01$), 경제적 지원($r=.239$, $p<.01$)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문화적 여건은 삶의 여유($r=.192$, $p<.05$), 자연환경($r=.233$, $p<.01$), 주거환경($r=.243$, $p<.01$), 자존감($r=.229$, $p<.01$)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하다. 내부주거여건은 삶의 여유($r=.325$, $p<.01$), 경제적 안정($r=.167$, $p<.05$), 자연환경($r=.265$, $p<.01$), 주거환경($r=.294$, $p<.01$), 자존감($r=.350$, $p<.01$)이고, 경제적 여건은 삶의 여유($r=.276$, $p<.01$), 경제적 안정($r=.315$, $p<.05$), 자연환경($r=.203$, $p<.01$), 주거환경($r=.372$, $p<.01$), 자존감($r=.429$, $p<.01$), 경제적 지원($r=.277$, $p<.05$)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제 8 절 농촌 이주요인이 귀농·귀촌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농촌이주요인이 귀농·귀촌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선호형태(귀농=0, 귀촌=1)이고 공변량은 성별, 연령, 교육정도, 성장지역, 직업, 이주영향, 컨설팅유무, 농업소득, 의사결정 하위요인 (행정,의료 서비스,외부주거환경,영농여건,문화적여건,내부주거환경,경제적여건)이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0] 농촌이주요인이 귀농·귀촌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 농촌으로 이주하셨거나, 이주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귀농=0, 귀촌=1)					
	B	S.E.	Wals	유의 확률	Exp(B)
성별 (남)	-.962	1.285	.561	.454	.382
연령 (60대이상:0)			6.872	.032	
40대이하	2.624	1.641	2.557	.110	13.790
50대	-.066	1.367	.002	.961	.936
교육정도 (대졸이상:0)			.612	.736	
중졸이하	.029	2.859	.000	.992	1.029
고졸	-.927	1.346	.474	.491	.396
성장지역 (면단위:0)			3.727	.292	
대도시	.110	1.337	.007	.934	1.117
중소도시	-1.759	1.395	1.590	.207	.172
읍지역	-1.314	1.402	.879	.348	.269
직업 (가정주부:0)			7.189	.409	
자영업	.308	1.699	.033	.856	1.361
판매서비스	-1.166	2.317	.253	.615	.312

전문자유직	4.210	2.239	3.535	.060	67.366
컨설팅 (유)	2.345	.993	5.572	.018	1.431
농업소득(50%이상:0)			14.547	.002	
0%	4.910	1.554	9.984	.002	135.574
30%이하	4.632	1.578	8.619	.003	102.746
50%미만	1.167	2.305	.257	.612	3.214
이주영향 (공무원:0)			3.922	.417	
부모형제	-2.476	3.718	.444	.505	.084
배우자	-2.157	1.352	2.545	.111	.116
친구선후배	-1.536	1.283	1.434	.231	.215
귀농·귀촌컨설팅	-.468	1.356	.119	.730	.626
이주이유 (기타:0)			2.966	.705	
농촌좋음	-5.207	4.418	1.389	.239	.005
노후대비	-4.502	4.347	1.072	.300	.011
자녀교육	-1.094	4.811	.052	.820	.335
가족건강	-4.429	4.358	1.033	.309	.012
생활비절약	-3.788	4.756	.634	.426	.023
농촌경험 (경험없음:0)			3.209	.361	
농촌거주	1.696	1.081	2.463	.117	5.455
농사경험	.706	1.194	.350	.554	2.026
직장학교사업	3.382	2.395	1.995	.158	29.441
행정의료서비스	.404	.571	.501	.479	1.498
외부주거환경	-2.617	1.262	4.303	.038	.073
영농여건	-.476	.465	1.051	.305	.621
문화적여건	-.455	.633	.516	.472	.634
내부주거환경	2.054	1.209	2.886	.089	7.802
경제적여건	-.844	.550	2.356	.125	.430
상수	7.873	5.582	1.990	.158	2,624.768
Pseudo R^2	Nagelkerke's R^2 : .658				
모형적합도	$\chi^2=7.061$ (df:8) p=.530				
분류정확도	귀농 : 74.4%, 귀촌 : 95.9%, 전체 : 89.8%				

위 모형에서 Nagelkerke's R^2 은 65.8%의 설명력이 있다. 모형적합도 ($\chi^2=7.061$, p=.530)는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유의확률이 .530으로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로지스틱 모형 적합이 잘 되었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즉 모형적합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류정확도는 귀농은 74.4%, 귀촌 95.9%, 전체 89.8%로 분류되어, 귀촌이 귀농보다 예측력이 좋게 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이주의사 결정 요인은 컨설팅유무, 농업소득, 외부주거환경이며, 성별, 연령, 교육정도, 성장지역, 직업, 이주영향, 이주이유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text{Exp}(B)=1.431$, $p<.05$) 로짓회귀계수 값이 2.345로서 양(+)의 값을 가지며, $\text{Exp}(B)$ 값이 1.431이므로 귀농보다 귀촌을 선택할 가능성이 1.431배 높다고 할 수 있다.

농업으로 인한 생활비의 비중이 0%인 경우($\text{Exp}(B)=135.574$, $p<.01$) 로짓회귀계수 값이 4.910으로서 양(+)의 값을 가지며, $\text{Exp}(B)$ 값이 135.574이므로 농업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귀농보다 귀촌을 선택할 가능성이 135배 높다고 할 수 있다.

농업소득이 생활비의 30%이하인 경우($\text{Exp}(B)=102.746$, $p<.01$) 로짓회귀계수 값이 4.632로서 양(+)의 값을 가지며, $\text{Exp}(B)$ 값이 102.746으로 농업소득이 30%이하인 경우 귀농보다 귀촌을 선택할 가능성이 102배 높다고 할 수 있다.

농촌의사결정요인의 하위요인인 외부주거환경($\text{Exp}(B)=0.74$, $p<.05$)은 로짓회귀계수 값이 -2.617로 음(-)의 값을 가지며, $\text{Exp}(B)$ 값이 .073으로 외부주거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귀농보다 귀촌을 선택할 가능성은 .073배 감소한다. 즉 외부주거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귀농을 선택할 가능성이 92.7%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농업소득이 없거나 30%이하인 경우 귀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주거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귀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위 로지스틱 회귀 모형 적합 결과를 토대로 귀촌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의한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log[p/(1-p)] = 7.873 + 2.345X_1 + 4.910X_2 + 4.632X_3 - 2.617X_4$$

X_1 : 컨설팅경험(유) X_2 : 농업소득(0%) X_3 : 농업소득(30%이하) X_4 : 외부주거환경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인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시민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귀농·귀촌컨설팅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 의사 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농촌 이주 의사 결정 요인 및 귀농·귀촌 컨설팅의 영향 등을 제시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효과적인 귀농·귀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자료 표집 방법으로 귀농·귀촌인 대상은 연구자가 직접 충남 서천 귀농인 협의회 및 서천지역 전원 마을에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였으며, 도시민 대상으로는 구글독스 및 이메일로 발송 및 회신을 받아 취합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신뢰도는 신뢰도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의향자의 농촌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정을 실시하였고,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인식 및 농촌이주 의사결정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촌에 대한 인식과 농촌이주의사결정과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농촌이주요인이 귀농·귀촌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귀농인이 농촌으로 귀농을 결심했을 때 귀촌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영농여건($F=12.190$, $p<01$), 문화적여건($F=4.860$, $p<05$)이었다. 귀농·귀촌 정책 수립 시 귀농인 및 귀촌인 별로 차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귀농·귀촌 의향자와 귀농·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은 결정요인 및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두 그룹 모두 귀농·귀촌을 결심했을 때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의 중요도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그룹 모두 내,외부 주거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그 다음 귀농인과 귀농의향자는 영농여건, 귀촌인과 귀촌 의향자는 행정의료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셋째,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확인을 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은 컨설팅 유무, 농업소득, 외부주거환경이며, 위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농업소득이 없거나 30%이하인 경우 귀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주거환경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귀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에 대해 많이 알수록 힘든 귀농보다는 귀촌을 선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 컨설팅을 받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주로 귀농안내 및 교육정도 받은 것을 귀농·귀촌 컨설팅으로 여기는 등 귀농·귀촌 컨설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설문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많아 실질적인 귀농·귀촌 컨설팅이 농촌이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연구 대상이 서천지역의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의 귀농·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귀농인과 귀촌인의 농촌이주 의사결정 요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정책 수립 시 귀농인 및 귀촌인 별로 차별적 정책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 정지웅, 임형백, 고운미, 김정태, 이성. (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1권 1호, 53-65
- 김윤성. (2012). 『최근 귀농·귀촌 현황과 지원 방향』. 2012 NHERI 리포트 제 177호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 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제3호, 533-556
- 김정섭, 임지은. (2011).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D 327
- 김창현, 변필성.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 활성화 전략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171-175
- 김철규, 이해진, 김기홍, 박민수. (2011).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
- 남인현. (2011). 도시근로자의 귀농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공주, 윤순덕, 강경화.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Vol. 12, No. 4.
- 박은경. (2008). 귀농인 이주 만족도 조사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윤철, 김동섭, 배성의, 유준상. (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특성.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제6집
- 오수호. (2011).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동향 : 1996~2010년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2권 4호, 77-90
- 오수호. (2013). 귀농·귀촌 가구의 이주. 정착 특성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우종현. (1997).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적응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3권 제1호, 99-113.

- 유학열. (2013). 충남지역 귀농·귀촌 실태 비교 연구. 『충남리포트』, 79호.
- 윤석환. (2010). 기초자치단체 귀농지원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4권 4호, 135-159
- 윤순덕, 강경하, 박공주, 이정화. (2005). 도시 장년층의 은퇴 후 농촌이주의사 결정요인. 『한국 노년학회』,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5, Vol. 25, No. 3, 139-153
- 이수행, 이상훈. (2012).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 귀농·귀촌 『경기개발 연구원 이슈 & 진단』, 제42호
- 이시자 (2010),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곡성군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아. (2011). '도시민 10명 중 7명 “농촌에 살고 싶다”'. 『농민신문』
- 지역농업연구원. (2008). 귀농·귀촌자 실태 조사를 통해 본 귀농·귀촌 정책방향 및 시사점: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업』, 3호, 83-98
- 최준호. (2013). 도시민의 귀농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교육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3).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보도자료』
- KB금융지주경제연구소. (2012).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귀농·귀촌 전망. 『KB daily 지식 비타민』, 2012-81호

[부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성대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에서 매니지먼트컨설팅을 전공하고 있는
권도원입니다.

본 설문은 귀농·귀촌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농촌 생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과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정책 자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협조해주신 자료는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적인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작성 중 문의 사항이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설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석사과정 권 도 원

전화번호 : 010-2356-0697

E-Mail : peterkwon57@gmail.com

구분		연번	
----	--	----	--

1. 다음은 여러분의 농촌이주(귀농·귀촌) 의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란에 $\sqrt{\quad}$ 표 해 주세요.

1) 귀하는 앞으로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이미 이주했다. ② 아주 많다 ③ 약간 있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2) 농촌으로 이주 하셨거나 이주 의향이 있으시다면 귀농귀촌 중 어떤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현재 어떤 형태입니까?)

- ① 귀농 ② 귀촌

3) 농업관련 소득(농업, 어업, 축산, 양계, 과수, 토종작물 등)이 생활비의 몇%에 해당
되십니까? (향후 3년 이내의 기대치 포함)

- ① 0% ② 1% ~ 30% ③ 31% ~ 49% ④ 50% 이상

4) 귀농·귀촌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신분이 있으십니까?

- ① 부모, 형제 ② 배우자 ③ 친구 또는 선후배
④ 귀농귀촌 컨설팅 (교육, 소개) ⑤ 농업 관련 공무원

5) (위의 1번 질문에 ①,②,③번에 응답하셨다면) 귀하는 농촌에 이주 하셨거나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농촌이 살기에 더 좋아서
- ② 노후 대비 (삶의 질)
- ③ 자녀 교육을 위해
- ④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 ⑤ 도시에 사는 것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 ⑥ 기타 ()

6) 귀하는 이전에 농촌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농촌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 ②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
- ③ 농촌에서 학교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한 적이 있다.
- ④ 위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2. 다음은 귀하의 농촌 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란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질문 내용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농촌이 도시보다 더 살기 좋다					
2	농촌에서도 도시만큼 편리하게 살 수 있다					
3	농촌에서의 삶은 이웃들 간의 공공체적 유대가 크다					
4	농촌에서의 삶은 경제적 활동기회가 풍부하다					
5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경관은 도시보다 좋다					
6	손쉬운 일(농사)을 통해 어느 정도 수입을 얻을수 있다					
7	재산이 급격하게 손실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8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하게 될 수 있다					
9	일을 통해 은퇴 후의 허탈감을 줄일 수 있다					
10	일을 통해 무료함을 달랠 수 있다					
11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몸(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					
12	자연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 질수 있다					
13	도시에서받는 스트레스와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					
14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5	삶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다					
16	유기 농산물 등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17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					
18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가질 수 있다					
19	전문지식, 경험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3. 다음은 귀하의 귀농·귀촌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본인이 귀농·귀촌을 결심했을 때 (할 때) 영향을 주는 정도를
빈칸에 √ 표 해 주세요. (농촌 이주의향이 없으신 분은 답을 안 하시면 됩니다)

번 호	질문 내용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별로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경제적 여유 (지출 비용 절감)					
2	자녀 교육 환경, 시설 여건					
3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4	행정서비스의 양호함					
5	마을정보화의 진척정도					
6	의료시설 · 수준의 양호함					
7	사회복지서비스(노인, 아동)의 양호함					
8	영농법과 농사기술 교육 여건					
9	농지 구입 및 임대 의 용이성					
10	치안 및 방범상태					
11	이웃주민과의 관계					
12	주택 규모					
13	주택의 시설수준(부엌, 화장실, 세면장 등)					
14	지역사회 자연환경					
15	문화 · 공연시설(극장, 전시관 행사장 등)					
16	주변 편의시설(백화점, 병원 금융기관 등)					
17	집밖의 소음 및 악취					
18	주택단지 내 녹지 · 조경시설					
19	직장으로의 접근성					
20	공공도서관 이용 편의성					

4.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40대 이하 ② 50대 ③ 60대 이상

3) 귀하의 교육 정도는?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4) 귀하의 성장지역은?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 지역 ④ 면 이하

5) 농촌 이주 전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자영업
- ②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③ 기능/숙련직 (운전자, 선반, 목공 등)
- ④ 일반 작업직 (토목 관계의 현장 직업, 청소, 수위 등)
- ⑤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5급 이하 공무원, 항해사 등)
- ⑥ 경영/관리직 (4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교장 등)
- ⑦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계 등)
- ⑧ 가정주부
- ⑨ 무직

6) 농촌 이주 전 귀하의 주거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④ 기타()

7) 귀농·귀촌 관련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귀농·귀촌 전문업체 면담, 귀농 프로그램 교육, 귀농·귀촌 안내 등)

① 있다 ② 없다

※ 끝까지 성심 성의껏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Consulting on the Rural Migration Intention for Urban workers

Kwon, Do Won

Major in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Dept. of Knowledge Service & Consulting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Service

Consulting

Hansung University

When looking closely into the studies made about the population returning to farming, the target is mostly the people who have not yet left the cities. Additionally, there are two different purposes in moving to rural areas: the farming population and the people making a living in other field of expertise in the countryside. We wish to call these two groups of people, farm-returners and rural-returners, respectively. Most studies have been done without differentiating the above two concepts and in most cases, rural-returners are considered a part of farm-returners; however, the purposes of those two interest groups are clearly different and therefore the decision making factors must be different as well. As evaluated so,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al with the following processes:

1. investigate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farm-returners, rural-returners, and urbanites;
2. analyze such factors to understand the actual reasons that urbanites move to rural areas;

3. compare the groups that had farm-return and rural-return consulting to research its influence on the decision making;
4. suggest the correct decision making factors and the influence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consulting;
5. and provide such data to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o be used and applied as basic data in making efficient policy for farm-returning and rural returning.

First,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farm-returns and rural-returns. Examining the sub factors, when an individual decides to become a farm-returner, the individual considers farming conditions ($F=12.190$, $p<01$) and cultural conditions ($F=4.860$, $p<05$) more important than a rural-returner.

Second, two groups were compared; a group of farm-returns and rural-returns and a group of those who intend to become farm-returns or rural-returns. Between the above two groups, statistically speaking, no meaningful differences in decision making factors and sub factors were fou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the influential factors are analogous to each other.

Third, it has been verified that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consulting has influence on the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decision making factor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 are: whether or not the person had consulted an expert, farming income, and outdoor residential environment. When reviewing the above analysis results, if a person who has had consulting experience and/or has less than 30% or no farming income, then the person will more likely become a rural-returner; and as the importance of outdoor residential environmen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farm-returner increases as well.

[Key words] farm-return, rural-return, farm-returning consulting, rural-returning consulting, decision making factors of farm-returning and rural-returning